

대우일렉 매각 협상 결렬

1년여 끌던 이란 엔텍합 "600억 깎아달라" ... 자산공사 거부

차순위 일렉트로룩스와 협상 타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협상이 결국 무산됐다. 우선협상자인 엔텍합이 매각대금 600억원을 깎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대우일렉 대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이를 거부, 사실상 협상이 결렬됐다.

30일 캠코 등 채권단에 따르면 이란계 엔텍합그룹은 이달 초 채권단에

대우일렉 매각 대금을 600억원 가량 깎은 5177억원으로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매각 주관사인 우리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매매대금 감액 결의안 승인'건을 상정했고, 캠코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이를 부동의 결정했다.

캠코 관계자는 "이날 이사회를 열

어 엔텍합이 요구한 '매각대금 600억원 감액 안건'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같은 의사를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우일렉의 채권금융회사는 캠코(48%)와 외환은행(6.6%), 신한은행(5.8%), 우리은행(4.8%), 서울보증보험(2.3%) 등으로 캠코가 가장 많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대주인 캠코가 안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엔텍합의 인수 추진은 무산됐다.

우리은행은 엔텍합과의 매각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스웨덴 가전기업인 일렉트로룩스와 인수 의향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렉트로룩스가 인수 의향을 밝히면 곧바로 매각 협상이 진행되고, 일렉트로룩스도 거부하면 대우일렉의 매각 작업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영양소 한몸에 품은 황태요~"

광주 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30일부터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 황태 특별전이 열려 주부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황태는 고단백 저칼로리 음식이면서 피로회복과 혈압조절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신세계 제공〉

저신용자 카드 연체 일반인의 30배 높아

과열 논란을 빚고 있는 신용카드 업계의 뇌관은 저신용자의 연체를 문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저신용자의 신용카드 연체율은 일반등급의 연체율에 비해 3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부위원회 이성현(한나라당) 의원이 30일 공개한 개인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6등급에 해당하는 일반 카드사용자의 연체율은 0.2%에 불과했다.

그러나 신용등급 분류상 저신용으로 분류되는 7~10등급의 연체율은 일반등급의 30배를 넘어서는 7.6%로 집계됐다.

이 의원측은 "금리상승 등으로 인해 저신용자의 부담이 증폭될 경우엔 카드사의 부실채권 확대에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저신용자의 연체율이 이처럼 심각한 상황인데도 카드회사 매출에서 저신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10등급의 카드 이용액은 66조5000억원으로 전체 카드이용액(373조4000억원)의 17.8%를 차지했다. 지난 2009년엔 저신용자의 카드이용액은 51조원으로 전체(311조5000억원)의 16.3%였다.

이 같은 현상은 카드사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카드발급을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10등급에 대한 카드발급건수는 193만6000건으로 지난 2009년(177만5000건)에 비해 17만건 가량 증가했다.

/*연합뉴스

KB·신한금융지주등 7곳

저축銀 인수 의향서 제출

7월 우선협상자 선정

부실이나 유동성 악화로 시장 매출로 나온 7개 저축은행 인수전에 KB금융지주 등 주요 지주회사들이 뛰어 들었다.

30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이날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 매각을 위한 인수의향서(LOI) 접수 마감 결과 KB금융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키움증권 등 모두 7곳이 인수의향서를 접수했다.

7개 저축은행은 ▲중앙부산+부산2+도민 ▲부산+전주 ▲대전+보해 등 3개 패키지로 나뉘어 팔린다. 옛 강원은행을 인수한 신한지주는 이 지역에 강점이 있는 도민저축은행이 포함된 '중앙부산+부산2+도민저축은

행' 패키지 인수에 의향서를 접수한 것으로 전망된다.

키움증권 역시 같은 패키지 인수의 향서를 냈다.

KB금융은 '부산+전주저축은행' 패키지에 인수의향서를 낸 것으로 관측되고 하나금융은 '대전+보해저축은행' 패키지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일부 지방은행들과 증권사도 의향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옛 산화저축은행을 인수한 우리금융과 불광역에 올랐던 대한생명, 메리츠화재 등 보험회사들은 이번 저축은행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았다.

예보는 앞으로 3주간 인수자 자산실사를 거친 뒤 6월말~7월초 본입찰을 실시, 7월 중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예보는 또 본입찰에서 우선 패키지

/*연합뉴스

국민銀 대학생 인턴 300명 채용

국민은행은 대학 3학년 이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300명 내외의 인턴사원을 채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채용 인원은 국내 대학생 200명과 해외 유학생 50명,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대학생 50명 등이다. 국내 대학생의 경우 벤처·온라인·오프라인 매장 창업 또는 운영 경험자 등 세일즈 역량보유자와 미담 또는 성공사례 등 특별한 이력보유자를 우대한다.

다. 해외유학생은 세계 100위권 이내 대학 재학생을, 외국인 유학생은 국민은행이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국가 출신을 우대한다.

인턴 지원 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홈페이지(www.kbstar.com)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최종 합격자는 6월 하순 발표한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곳곳 마트 개점 갈등

매곡동 이마트·여수 롯데 SSM·나주 롯데마트 등

광주·전남지역에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두고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30일 광주 북구 매곡동 이마트 신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마트 입점 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공사장 입구에서 출근 시간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대책위는 그동안의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이마트 측이 입점 장소 측량을 완료하고 울타리 공사에 들어감에 따라 당분간 1인 시위를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공산 중단 촉구 의지를 담은 기자회견을

31일 열 계획이다.

이봉훈 대책위 상황실장은 "불법 건축허가 의혹과 건축허가취소 소송 등 이마트 입점을 둘러싼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공사 강행은 지역사회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이마트가 지역과의 상생을 원한다면 당장 입점을 위한 공사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29일 나주시 송월동에 롯데마트가 신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나주상권을 대표하는 농·축협 하나마트와 의류, 가전, 가구 등을 취급하는 지역 중·소상인들이 바짝 긴장한 가운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석철 나주시 상가변영회장은 "롯데마트 입점 소식을 듣고 상인 대다수가 걱정이 태산"이라며 "생존권 수호차원에서라도 끝까지 투쟁해서 입점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지역 상인과 시민사회단체 등도 현재 영업중인 3곳의 롯데슈퍼에 이어 문수동에 1곳이 추가 입점키로 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여수지역 상인 및 시민사회 단체 등 22개 단체로 구성된 '대기업슈퍼마켓 입점 반대 여주시 비상대책위'는 지난 26일 오후 여주시청사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롯데쇼핑의 롯데슈퍼가 무차별 입점을 강행하면서 지역상인들이 삶의 터전과 서민경제가 위기에 처해있다"며 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光銀 직원가족 초청 만찬

원 커풀 부부 등 이색적인 직원부부들이 초청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광주은행 창립 43주년을 기념해 43쌍의 직원부부가 초청됐다. 이날 다자녀 가족에게 주는 다복상에 4자녀를 두고 있는 광주은행 신세계지점 한병훈 지점장이, 80세 이상 노부모임을 병양하고 있는 직원에게 시상하는 효도상에는 양찬승 상무금융센터 지점장이 수상해 의미를 되새겼다.

/*최재기기자 lion@kwangju.co.kr

2010 大韓民國 신지식인 대상 수상

오리요리 전문가 박만순의 상차림 코스요리 등 오리요리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코.입을 동시에 즐겁게 하는 즉석 불꽃구이 효소 웰드덕 찜 한방오리구이

수상배경 2010. Korea Food Expo.COEX 웨프의 상차림 월드덕 브랜드 요리출품

• 광주1등맛집 • 다담회 한국맛집 • (주)외식공간 오리요리 최고맛집 • 우리은행 우리나라우리명가 • 광주은행 소호명가

“발효 효소”백초, 술손 상시준비 단체모임환영

붕선동 월드덕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062)671-2177,1177



유전일식이 참치와 함께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20여가지 음식이 준비된 고품격 점심특선 을 저렴하게 만나볼수 있습니다 가족모임, 귀한 손님 접대에 맛있고 다채로운 고품격 유전일식이 으뜸입니다.

유전일식은 최고의 맛과 품격을 추구합니다

유전일식 점심특선 17,000원 유전 특정식 25,000원 유전 특참치 35,000원

유전일식 예약전화 062-233-9911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253